

교원양성기관에서 인터넷윤리 교육의 필요성 및 강화 방안

김택헌[†]

요 약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인터넷을 이용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인터넷윤리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 나갈 예비교사들에 대한 인터넷윤리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사를 양성하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인터넷윤리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예비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본 논문에서 컴퓨터교육 관련 전공을 설치한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인터넷윤리 교과과정에 대한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교원양성기관의 30%도 채 안되는 기관에서만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인터넷윤리 교과과정 운영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 이를 다른 교과 교육에 대해서도 적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직 교사들에 대한 인터넷윤리 교육에 대한 연수 및 재교육 또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교원양성기관, 인터넷윤리, 인터넷역기능

The Necessity and Strengthening Plan of Internet Ethics Education in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Taek-Hun Kim[†]

ABSTRACT

Internet ethics education in school is very necessary for young people to use the Internet properly and to be able to utiliz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ell. However Internet ethics education for the would-be teachers is very insufficient.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hat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to train teachers operates Internet ethics curriculum and teaches it to would-be teachers.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operating status about Internet ethics curriculum in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in which open a major in computer related education. As a result, only less than 30% of the entire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are operating to have the curriculum. So,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Internet ethics curriculum in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should be strengthened and we should have applied it to other curriculum in other major. In addition, training and retraining to the teachers for Internet ethics should be strengthened.

Keywords : Teacher training instutions, Internet ethics, Internet adverse effect

[†] 정 회 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컴퓨터교육전공 조교수(교신저자)

논문접수: 2013년 01월 07일, 심사완료: 2013년 02월 25일, 게재확정: 2013년 03월 11일

* 이 연구는 2012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1. 서론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해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통신 문명의 혜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특히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과 이들의 연결을 지원하는 컴퓨터, 그리고 모바일 단말기 및 이러한 기기들에서 쉽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술의 발달 및 지원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은 과거 네트워크의 연결 없는 소규모 오프라인 지역 커뮤니티 중심에서 다양한 관심과 주제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온라인 글로벌 커뮤니티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획기적인 관계 및 소통의 장인 셈이다.

이렇듯 정보의 바다이면서 한편으로 소통의 바다인 인터넷 공간은 이를 이용하는 많은 이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윤리의식으로 인해 올바른 인터넷 이용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역기능을 낳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인터넷 이용에 따른 역기능으로는 개인정보침해는 물론 인터넷중독, 유해정보유통, 저작권침해, 사이버범죄 및 보안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부작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1].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의 역기능 문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 이상은 경험했을 정도로 그 피해가 보편적이고 피해 정도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특히 올바른 인성을 키우고 인적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을 바르게 해 나가야 하는 청소년들은 이러한 역기능에 상당부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올바른 윤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체계적이고 꾸준한 인터넷윤리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에서의 교육은 그 필요성만큼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2].

현재 제7차 교육과정 및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의 인터넷윤리 교육이 여러 교과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수업시수가 부족

하고 전문교사가 제대로 양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그 실효성마저 떨어지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2][3]. 실제 초중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에서의 인터넷윤리 교육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교사들의 전문지식 부족이 인터넷윤리 교육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의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다[4][5][6].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대책이 종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전문교사의 양성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다시 말해 이들 교원들을 양성하는 기관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거슬러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원양성기관에서 예비교사들에 대한 인터넷윤리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운영이나 현직 교사들에 대한 인터넷윤리 교육을 위한 연수 모두 매우 부족한 실정인에서 시급히 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4][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의 역기능으로 인해 학교에서의 인터넷윤리 교육과 이를 담당할 전문교사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를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조사하여 적절한 인터넷윤리 교육을 위한 전문교사의 양성 실태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필요한 정책적 교육적 대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2. 인터넷 역기능 및 인터넷윤리 교육의 필요성

2.1 인터넷 역기능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많은 기술 문명적 혜택을 가져다 주었다. 사람들은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대규모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적절히 취사 선택할 수도 있게 되었다. 오프라인에서 맺은 관계를 온라인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시켰으며, 오프라인과는 다른 새로운 커뮤니티의 공간을 창출시켰다. 모바일 기기와 이동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질 정도가 되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 할수록 새로운 기회와 혜택을 더 많이 취할 수 있게는 되었으나,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이 점차 부각되어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인터넷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흔히 인터넷 역기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개인정보침해, 인터넷 중독, 저작권침해, 유해정보유통, 사이버범죄 및 정보보안에 이르기까지 그 부작용과 이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다[1].

특히, 이러한 인터넷의 역기능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특히 청소년들은 아직 이성적으로 완전히 성숙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소년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할 것이기에 청소년들이 접하게 되는 인터넷의 부작용 문제는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2010 교육정보화 백서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이용에 대한 내성과 금단으로 인해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여 일상생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청소년에게 있어 인터넷 중독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8].

2.2 인터넷윤리 교육의 필요성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10년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이 12.4%로 성인의 인터넷 중독률인 5.8%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9]. <표 1>은 실태조사에 따른 30대 이하의 인터넷 중독률 및 중독자수를 보여준다.

<표 1> 인터넷 중독률 및 중독자 수

구분	중독률(%)	중독자수(천 명)
초등학생	13.7	329
중학생	12.2	241
고등학생	10.0	222
20대	8.0	546
30대	4.0	319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저 연령대로 갈 수록 인터넷 중독률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인터넷 중독률이

13.7%로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중독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제로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률은 전년대비 2.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들에 대한 인터넷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9].

<표 2>는 실태조사에 따라 연령대별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최초의 시기를 보여준다[9].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을 처음 접하는 시기는 성인의 경우 사회생활을 하기 전까지를 모두 합친 것이 79.2%로 80% 미만에 머물러 있지만, 청소년의 경우는 초등학교 때까지 이미 95.2%가 인터넷에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이 시기에 올바른 인터넷윤리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2> 인터넷 최초 이용 시기

구분	전체	청소년	성인
유아원~초등학교	45.8	95.2	22.3
중·고등학교	30.0	4.7	42.0
대학교/대학원	10.1	0.0	14.9
사회생활하면서	14.1	0.0	20.8

또한 인터넷을 처음 접한 이후로는 지속적인 이용이 예상되고, 실제 초·중등학교에서 수업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짐으로 인해 초등학교는 물론 중등학교에서의 올바른 인터넷윤리에 대한 교육이 청소년들의 바른 인터넷 사용 습관 및 인성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다.

3. 학교에서의 인터넷윤리 교육

3.1 개정 교육과정의 인터넷윤리 교육

제7차 교육과정을 개정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 등 인터넷윤리 관련 내용을 보다 다양한 교과에서 반영하여 교육하도록 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터넷윤리 교육과 관련하여 추진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5년에는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정규교과 중 7시간 이상의 인터넷윤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범 교과차원의 재량시간을 활용한 인터넷윤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2006년에는 인터넷윤리 교육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운영방향’을 수립하여 신규 교사의 경우 2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받도록 하였고, 1급 정교사의 경우에는 15시간 의무 직무연수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9년에는 15개 교과에서 인터넷윤리 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한 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8개 교과로 확대 반영하도록 하였다[8].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실과 과목의 생활과 정보 영역에서 정보윤리와 관련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올바른 정보윤리 의식을 가지고 정보 기기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 정보 과목은 ‘미래 정보사회의 일원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인 정보윤리 및 정보보호, 정보기술 및 기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고등학교 정보 과목의 경우는 ‘미래 정보사회의 일원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인 정보윤리 및 정보보호, 정보기술 및 기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있다[10]. <표 3>은 중등학교 정보 과목의 내용체계 중에서 인터넷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보여준다.

<표 3> 중등학교 정보 교과과정

영역	내용 요소
정보과학과 정보윤리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과학과 정보사회 · 정보 과학 기술의 역사 · 새로운 정보기술의 윤리적 활용 - 정보의 윤리적 활용 · 개인정보의 침해와 대응 방안 · 지적재산의 보호와 정보공유 - 정보사회의 역기능과 대처 · 인터넷 중독과 예방 · 악성 프로그램과 대응방안 - 정보기기의 보호
정보과학과 정보윤리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과학과 정보사회 · 정보 과학 기술의 분야 · 미디어의 변화와 정보윤리 - 정보의 윤리적 활용 · 정보보안과 대응 기술 · 정보윤리 관련법과 제도 - 정보사회의 역기능과 대처 · 사이버 범죄와 대응 방안 · 유해정보 유통과 대응 방안

3.2 컴퓨터교육전공의 인터넷윤리 교육

인터넷윤리 교육은 기존의 전통적인 윤리 교육과는 달리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적 요소에 대한 전문 지식이 수반된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도 인터넷윤리를 담당하는 교과가 주로 정보 교과목이 되고 있다.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물론 인터넷윤리 교육을 어느 특정 과목에서만 가르치는 것 보다는 여러 교과목에서 통합교과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보다 강화된 인터넷윤리 교육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11].

한편 국내 중·고등학교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학교에서 인터넷윤리 교육은 컴퓨터 관련 교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66.7%로 나왔다[2]. 이것은 인터넷윤리 교육을 다른 교과에서 담당하는 것 보다는 컴퓨터 및 정보 교과에서 해당 전문 교사로부터의 교육이 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동 연구에서는 현재의 컴퓨터 관련 교과에서 인터넷윤리 교육에 관해 더 많은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81.5%로 나와 현재 보다 더욱 강화된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2].

이외에도 인터넷윤리 교육에 있어 컴퓨터관련 교과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인터넷윤리 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다수의 연구 사례들이 제시되었다[3][4][12][13][14][15][16].

4. 교원양성기관

4.1 초등교사 양성기관

우리나라의 교원양성기관 중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은 모두 13개 대학으로 국립대 12곳과 사립대 1곳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국립대의 경우는 교육대학 11곳이 속해 있다. <표 4>는 우리나라 초등교사 양성기관 현황을 보여준다[17]. 표에서 제주대의 경우는 2008년 제주대학교와 제주교대가 통합되어 제주교대가 제주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표 4> 초등 교사 양성기관

설립별	양성기관
국립	교육대학(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제주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사립	이화여대

4.2 중등교사 양성기관

중등교원의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는 사범계와 비사범계로 구분할 수 있다. 사범계에는 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육과가 속해 있으며, 비사범계에는 일반대학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중등교원 양성기관 현황은 다음 <표 5>에서 보이는 것과 같다[17].

<표 5> 중등 교사 양성기관

과정별		설립별	기관수
사범계	사범대학	국.공립	16
		사립	30
	일반대학 교육과	국립	8
		사립	96
비사범계	일반대학 교직과정	국립	31
		사립	134
	교육대학원	국립	35
		사립	101

5. 교원양성기관의 인터넷윤리 교육과정 분석

교원양성기관에서 인터넷윤리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원양성기관의 인터넷윤리 교육과정 운영실태를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제외하고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그리고 교육대학원에 대하여, 각 기관에 설치된 컴퓨터교육 전공 및 관련 유사 전공을 중심으로 해당 전공 홈페이지에 제시된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5.1 정보·컴퓨터 교사 양성기관

정보·컴퓨터 자격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컴퓨터교육 관련 전공을 개설한 교원양성기관으로는 초등교사 양성기관으로 교육대학 11곳과 한국교

원대를 합쳐 모두 12곳의 대학이 있으며, 중등교사 양성기관으로는 <표 6>에서 보이는 것과 같다.

<표 6> 컴퓨터교육전공 설치대학

과정별	설립별	기관수	총수대비 설치율(%)
사범대학	국립	7	43.8
	사립	8	26.7
일반대학 교육과	국립	0	0.0
	사립	1	1.0
일반대학 교직과정	국립	21	67.7
	사립	64	47.8
교육대학원	국립	29	82.9
	사립	60	59.4

5.2 컴퓨터교육전공의 인터넷윤리 교육과정 분석

컴퓨터교육 관련 유사 전공은 <표 7>에서와 같으며, 각 대학의 사정에 따라 전공 이름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컴퓨터교육 관련 전공

전산교육전공, 전자계산교육전공, 정보·컴퓨터교육전공, 정보교육전공, 정보처리교육전공, 정보컴퓨터교육전공, 초등컴퓨터교육전공, 컴퓨터교육전공, 컴퓨터정보교육전공, 컴퓨터교육과, 정보과학교육과

또한 인터넷윤리 교과 과목에 있어서도 해당 전공에 따라 이름을 조금씩 달리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인터넷윤리 관련 교과목은 다음 <표 8>에서 보이는 것과 같다.

<표 8> 인터넷윤리 관련 교과목

과정별	교과과정
초등교사 양성기관	정보통신윤리, 정보통신윤리의이해, 정보통신윤리교육, 정보윤리교육의이해
사범대학/교육과	정보통신윤리, 정보통신윤리및실습, 정보통신윤리교육론, 정보윤리교육론, 인터넷윤리
교육대학원	정보통신윤리, 인터넷윤리교육, 정보통신윤리특론, 정보통신윤리교육론, 컴퓨터윤리, U시대의정보통신윤리, 정보윤리와정보보호, 정보사회와컴퓨터윤리, 정보윤리교육, 정보윤리, 정보윤리와보안, 정보통신윤리와보안, 정보통신윤리특강, 정보통신윤리교육사례연구, 정보사회와윤리

다음으로 컴퓨터교육 관련 전공에서 교과과정으로 편성한 인터넷윤리 관련 교과목 사례를 분석한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인터넷윤리 교과과정 운영 실태는 다음 <표 9>에서와 같다.

<표 9> 인터넷윤리 교과과정 운영 실태

과정별	설립별	기관수	운영 기관수	운영율 (%)
교육대학	국립	12	4	33.3
사범대학	국립	7	3	42.9
	사립	8	5	62.5
일반대학 교육과	사립	1	1	100.0
교육대학원	국립	29	5	17.2
	사립	60	15	25.0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대학 교육과를 제외하면 사립 사범대학만이 유일하게 인터넷윤리 교과과정 운영율이 62.5%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교육대학원의 경우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인터넷윤리 교과교육과정 운영율이 20% 내외에 머무는 수준으로 다른 교원양성기관 중에서 가장 낮은 운영율을 보이고 있다.

교원양성기관을 설립에 따라 국립대와 사립대의 두 가지로만 나눈 결과와 전체를 통합한 결과는 아래 <표 10>에서 볼 수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교원양성기관에서 인터넷윤리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비율은 최대 30%를 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인터넷윤리 교과과정 운영 실태 종합

설립별	기관수	운영기관수	운영율(%)
국립	48	12	25.0
사립	69	21	30.4
전체	117	33	28.2

5.3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인터넷윤리 교육의 시사점 및 강화방안

교원양성기관은 교사를 양성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학교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양성기관에서의 교육과정 또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붙어져 나오는 수많은 부작용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을 토대로 한 적절한 윤리 교육이 중요하다. 이것이 컴퓨터교육 관련 전공에서의 인터넷윤리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교원양성기관에서 해당 전공의 교육과정을 검토해보면 전체기관의 30%도 채 안되는 대학에서만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역량을 갖는 교사를 양성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기술 이용에 따른 환경 변화를 교육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컴퓨터 교과를 넘어서 통합교과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 관련 전공 교사뿐만 아니라 타 전공 교사들에 대한 인터넷윤리 교육을 통해 모든 교과 교사들의 역량을 높이는 일이 필요해 진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컴퓨터교육전공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전공의 예비 교사들에게도 인터넷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미 현직 교사로 임용되어 학교 현장에서 있는 교사들에 대한 인터넷윤리에 대한 연수 및 재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표 11>은 이러한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들에 대한 인터넷윤리 교육 강화방안을 보여주고 있다.

<표 11> 인터넷윤리 교육의 강화방안

대상	강화방안
예비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교과교육전공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윤리 교육과정을 선택교과에서 필수교과로 운영 - 타교과교육전공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윤리 교육과정을 필수 혹은 선택교과로 적극운영
현직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윤리 교육을 필수 연수과정으로 이수하도록 연수제도 강화 - 교육대학원에서 현직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시 인터넷윤리 교육과정 필수 운영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먼저 교원양성기관의 인

터넷윤리 교육 측면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교원 양성기관에서 인터넷윤리 교육과정은 선택교과로 운영되고 있고, 심지어 인터넷윤리 교과가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강의로 개설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인터넷윤리 교과를 필수교과로 지정하여 모든 예비교사들이 인터넷윤리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컴퓨터교육전공이 아닌 다른 교과교육 전공 예비교사들에 대해서도 해당 전공에서 인터넷윤리 교육과정을 적극 운영하여 교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컴퓨터 비교과교육 전공에서의 인터넷윤리 교과는 필수 혹은 선택교과로 운영할 수 있으나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필수 교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현직 교사 연수 및 재교육 강화 측면에 대해 살펴보면, 이미 현직 교사로 임용되어 학교 현장에서 있는 교사에 대한 인터넷윤리 교육에 대한 연수 및 재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현직 교사들의 경우 재직하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연수를 받게 된다. 여기에는 ICT 활용 교육이나 스마트러닝 등이 포함되어 교사들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고 교수-학습 기술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기 및 인터넷 환경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학교 교육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인터넷윤리 교육이 필요하고, 이는 현직 교사들에 대한 인터넷윤리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연수로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모든 교사들이 인터넷윤리 교육을 연수과정에서 필수로 이수하도록 연수 제도를 강화해야 하며, 교원양성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연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직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을 위해서는 교원양성기관 중에서 교원의 재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대학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6. 결론

청소년들에게 있어 인터넷윤리 교육의 중요성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올바

른 윤리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사회 구성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학교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역량이 중요하게 되며, 이는 다시 이들 교사를 양성하는 교원양성기관의 중요성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인터넷윤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컴퓨터교육전공은 물론 다른 모든 교과 전공의 예비교사들에게도 인터넷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초·중등학교에 임용된 현직 교사에 대한 인터넷윤리에 대한 연수 및 재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에 노출되는 시기가 과거와 달리 점차 빨라지고 있고 심지어 유아기 때부터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감안하여 유치원교사에 대한 인터넷윤리 교육의 강화 또한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참고 문헌

- [1]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2011). **인터넷 윤리**. 경기:이한출판사.
- [2] 임승수 (2009).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3] 박민아 (2007). **중등 컴퓨터 교육에서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고찰**. 석사학위 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 [4] 김성식·조성환 (2008). 학습자 입장에서 살펴본 교원양성 대학에서의 정보윤리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모델 설계.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1(3), 33-41.
- [5] 김은지 (2005). **정보통신윤리 교육에 대한 실태분석 및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6] 이건용 (2004). **정보통신 윤리에 대한 초·중 교사들의 인식수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 [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7). **초·중등학교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

RR 2007-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0). 2010 교육정보화 백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9]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2010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 [10] 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교육과학기술부.
- [11] 유상미 · 신승용 · 김미량 (2010). 통합교과에서의 정보윤리 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교수-학습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11(5), 81-94.
- [12] 김재호 · 김창석 (2008). 개정된 중학교 정보 과목의 교육과정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집**, 18(2), 293-296.
- [13] 손주은 · 배용근 (2010). 인터넷 윤리교육을 위한 교육 방향. **한국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집**, 13(2), 509-510.
- [14] 이호선 (2010). **고등학교 정보통신 윤리교육의 개선 방안**.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 [15] 임진숙 · 정영식 · 김성식 (2003). 컴퓨터 교육에서 정보윤리교육 내용 체계의 개선 방안. **교육과정평가연구**, 6(2), 371-385.
- [16] 정순원 (2008).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 방안. **교육정책포럼**, 통권175, 4-7.
- [17]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1학년도 교원양성 기관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김택헌

1996 동국대학교
전자계산학과(공학사)
2000 연세대학교
컴퓨터학과(공학석사)

2005 연세대학교 컴퓨터학과(공학박사)
2011~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컴퓨터교육전공 조교수
관심분야: 컴퓨터교육, 추천시스템, 모바일컴퓨팅
E-Mail: kimthun@hufs.ac.kr